

## 工匠의 育成



### 지 자 약 력

- 철도공무원 근무(5년)
- 고려대학교 교수(38년)
- 대한토목학회 회장
-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공학박사, 구조기술사

徐 英 甲

### 技術人에게 主人意識을

옛날 어느 君主가 工人을 불러서 後世에 오랫동안 남길 만한 構造物을 만들어야 하겠는데 要求事項을 말하라고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 1) 일을 맡긴 다음에 간섭을 하지 말것
- 2) 좋은 材料를 쓰게 하며 工費를 아끼지 말아 달라
- 3) 工事期限을 短縮시키지 말아 달라

이 要求는 快히 승낙되고 만들어진 構造物은 오랫동안 後世에 남아있었다고 한다. 지금 와서 들으면 평범한 이야기이나 그 시대가 지엄한 君主시대였으니 이 工人이야 말로 匠人精神이 투철한 工匠이라고 칭할 수 있다.

2次産業인 道路建設, 港灣工事, 上水道擴張, 水力發電 等 土木工事는 公共 國家工事이고 個人을 爲한 일은 아니다. 建設業體나 이에 從事하는 技術人들은 國家事業에 忠實하며 이에 精誠을 다하는 것은 나라에 忠誠을 다

하는 것이 된다. 世界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古代로부터 큰 國家的 土木事業이나 大建築物을 남긴 技術人이나 藝術人은 그 技能이나 藝能을 다 바치고 名聲까지도 남겼다. 또 이러한 大事業을 일으키는 國家的인 發注廳은 먼저 말한 名君主와 같이 技術人에게 主人意識을 갖도록 일을 맡겨야만 되겠다. 그러기 위해 工事費의 適正價 技術的인 調査費 算定等を 다하여야 效率的인 成果를 期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뜻있는 일에 忠實하기 위해 工學을 배우고 實務에 能通코져 끊임없이 努力하는 것이 技術人의 참된 자세이다.

### 여러가지 複合的 要因들

1945년 8·15直後 政治에 뜻있는 當時의 先覺者들은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하는 것이 상례였다. 「日本이 敗戰한 것은 科學文明에 뒤지고 技術能力의 不足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는 日本을 쫓아가기에도 歲月이 要하니 큰일이다」라고. 事實 1948年 建國後에 技術系 人力不足은 말할 수 없고, 高級人力은 全國을 통털어 極小數이고 이들 마저도 經驗이 없어 實務技術能力에는 弱한 高等教育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交通部的 顧問이라는 美國인은 路線測量은 韓人들이 다하였지만(당시 寧越線, 榮岩線을 말함) 工事는 美國業者들을 불러야 겠다고 말한바 있어서 物議를 일으키고 結局은 우리나라 都給者로

하여금 두 鐵道線을 竣工케 되었지만 여러가지 無理한 점(火藥, 시멘트 等 國産이 없었음)이 많았다. 그 후 여러 困難을 거쳐 1962年에 들어서 비로소 鋼道路橋設計示方書를 制定하게 되었다.(다른 나라에서는 1910年代에 한 일임)

그 後에 將軍出身이 行政府의 要職에 앉게 되었으며 그 揮下에서 겪은 技術職 公務員들의 苦衷이 많았다고 들었다. 外國에서는 國家의 二次基幹産業의 土木事業은 계획부터 土木職公務員이 注力하는데 비해 우리들은 이에 혼선을 일으키게 되어 結果的으로 土木構造物의 設計와 施工의 成果에 좋지 않은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고 본다.

더 말할 나위없이 專門職土木의 公務員이 調査結果를 검토하고 이들이 토의한 結果 計劃方針을 세워서 設計토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問題點은 그때마다 解決해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이것을 設計側에 方針 指示한 것과는 달리 最終 審査는 外部(主로 教授나 現職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일은 矛盾된 일로서 本末 전도이며 責任轉嫁의 악패의 연속이 되고 만다.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監査하는 쪽에서 專門 技術的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領域外에 속하여 副作用까지 생길 可能性이 있다.

監理제도가 있는 이상 이것을 充分히 活用하고 育成하여서 發展시킬 必要가 있다고 본다. 外國人의 監理의 말은 金言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말은 아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도 큰일의 監理도 하면서 배우고 경험을 쌓아야 하며 터득해야만 한다.

## 앞으로 건전 육성을

우리의 立場은 歷史的으로 自然科學이나 工學面에서 一般的으로 健全 發展할 機會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도 過言이 아니다. 먼저 말한 바와 같이 解放 直後부터 工業發展과 土木의 設計 施工等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開發할 機會를 포착했어야 하는데 늦어진 感이 있다고 본다.

産業이 專門化, 分業化가 되어서 計劃되고 調査하여 立案하며 設計를 시키는 技術公務員과 설계관계 종사자들은 올바르게 判斷하고 設計者는 現地 條件을 完全히 파악하며 가장 適合한 設計를 제시하여 使命感을 가진 施工者는 工匠의 精神을 발휘하여 老練한 監理의 意見을 充分히 수렴하여 完成을 期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助成하며 政策立案者들은 우리의 土木事業을 育成 獎勵하는 方向으로 善戰하여서 落後된 原因을 찾아내어 이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겠다.

先進된 新技術이 하루아침의 模倣으로 잘되는 것은 아니고 創意力과 努力으로 歲月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임을 잘 알아야 겠다.